좋은 인력이 더 나은 기술과, 더 큰 미래를 꿈꾸게 하다

생기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_㈜서남

중소 · 중견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수없이 다양하지만, 특히 전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싶어도 연구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인건비가 부담돼 채용을 꺼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 물론, 공공연구기관의 도움이나 정부과제를 통해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기업의 기술 개발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주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 부족 현상을 해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그 중 생기원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을 지원받는 기업, ㈜서남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기술인재 지원으로 기술 개발에 힘을 보태다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이하 연구인력 파견사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기술인력을 중소 · 중견기업에 장기 파견하고 현장 R&D 인력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기술인재지원 프로그램이다. 국내 공공연구기관 모두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전체 219명 중 생기원이 66명의 연구인력 파견근무를 진행하고 있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에 파견되어 좀 더 밀착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도 매우 높은 편이다.

생기원에서는 먼저 중소 · 중견기업이 연구인력 파견사업을 신청하면 생기원에서 적절한 연구인력을 매칭해주는 작업을 선행한다. 이후 기업과 생기원이 공동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결정과정을 거쳐 3년간 연구인력 파견근무를 지원받게 된다. 이때 파견근무 시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과 생기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중소기업에서 석 · 박사급 인력을 채용할 때 가장 우려가 되는 금액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더불어 생기원이 해당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찾아 추천해줌으로 인해 전문인력채용에 있어 신뢰도 높일 수 있다. 이 3년 동안 중소기